特許戰略落穗

正露丸의 70年紛爭

──信用있는 商標는 無限한 財產──

옛날 日本軍에서는 整腸劑로서 征露丸을 軍陣藥으로 使用하였으며 露日戰爭이 끝난 뒤에 어느 製藥業者가 같은 藥에 征露丸이란 이름을 붙여 傷痍軍人으로 하여금 全國을 行商시켰다는 것이다.

그후 1906年頃 中島佐一이란 사람이 大阪地方에서 같은 약을 같은 方法으로 製藥販賣와 同時에 征露丸이란 名稱으로 商標를 出願登錄하려 하였으나 이에 앞서 島栖製劑會社가 이 正露丸이란 상표를 丸藥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1905年 9月에 이미 등록하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中島는 島栖製劑와 協議하여 商標의 共有者가 되었으나 그때 日本國內에서 征露丸이란 약을 製販하는 業者만도 30餘名이 되어 그 명칭은 이미 日本全國에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中島는 征露丸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全業者에게 書信을 보내어 사용을 中止시키려 했다.

그러나 1924년에 日本製藥會社등 2個 企業이 征露丸이란 명칭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普通名稱이라 하여 그 商標의 登錄無効를 逆提訴하였고 드디어 1926년에는 大審院(大法院)으로부터 登錄商標의 무효가 判示되었다.

그후 中島는 1937년부터 忠勇征露丸이란 명칭으로 약을 製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浪速製藥會社에서 使用禁止訴가 提起되어 紛爭끝에 中島의 先使用權이 認定되었다.

그후 1943년에 2次世界大戰을 契機로 日本의 各企業이 統廢合되어 征露丸의 분쟁은 일단 멈추었으나 終戰과 더불어 征露丸, 正露丸, せいろ丸, セイロ丸 혹은 ○○征露丸, ××正露丸 등의 이름으로 50餘種의 同類整腸劑가 亂場을 이루었다.

이때 日本 厚生省 藥務局이 行政指導라는 이름으로 「征」字 대신에 「正」字로 고치는 製藥業者가 늘었으며 이통에도 1950년에 大幸藥品會社가 丸藥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正露丸이란 상표를 出題하였고 1954년에는 등록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등록이 公開되자 和泉藥品등 2個 企業이 『正露丸을 이미 普通名稱이라』하여 登錄無効審判을 請求하였던 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다시 審判決定의 取消를 提訴하였다.

이때에 正露丸이란 명칭은 登錄當時 이미 出所의 表示力이 없는 一般的 名稱으로서 國民들에게 널리 認識되어 있었다 하여 法院은 등록무효를 否認하는 심판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大幸藥品은 이에 不服하여 大法院에 上告하였으나 1974년에 「普通의 文字로 表示한 正露丸의 상표는 상품의 普通名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方法으로 表示한 것에 不過하다」라는 最終決定을 判示함으로써 70餘年에 걸친 征露丸紛爭은 終幕하였으며 正露丸은 크레오소트를 主劑로 하는 整腸劑의 보통명칭이 됨으로써 누가 사용해도 無妨하게 되었다.

상표는 企業에 不可缺의 얼굴이다. 아름다운 상표, 부르기 쉬운 상표는 消費者에게 기업의 信用力을 높이고 상품에 걸맞는 상표가 잘팔린다는 힘을 誇示함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한때 美國에서 캐논 타올이 百貨店과 協力하여 同品質의 타올을 한쪽은 캐논이란 이름으로 또 한쪽은 無名으로 同一場所에 陳列하였던 바 무명보다 有名인 캐논타올이 3倍 以上이나 팔리더라는 것이다.

이때 이름붙인 캐논타올의 定價를 무명의 同質타올보다 4센트나 비싸게 붙여도 유명타올이 두배 이상이나 팔렸고 10센트 이상을 비싸게 값을 부치니까 비로소 비슷한 量이 팔리더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표가 信用있는 企業의 마크로서 알려지면 그때는 金錢으로도 살 수 없는 힘을 과시하게 된다는 본보기라 하겠다. (石井重三著 特許繫爭에서 본 經營戰略에서 參考)